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붙임 없음)
배포일시	2021. 8. 20.(금)	담당부서	문체부 전통문화과 보훈처 국제협력담당관실
담당과장	문체부 박미경(044-203-2550)	담당자	사무관 홍희경(044-203-2548) 주무관 김은아(044-203-2558)
	보훈처 강귀영(044-202-5890)		사무관 김지숙(044-202-5914) 주무관 이상호(044-202-5916)

유엔참전국에 국제보훈으로 한국 전통문화 알린다

- 8. 20. 문체부와 보훈처, 전통문화-국제보훈 협력 업무협약 체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와 함께 유엔참전국에 한복 등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한 업무협약을 8월 20일(금) 오후 4시 30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유엔참전용사에게 전통문화 체험 등을 통해 감사를 전하고, 유엔참전국에 한복을 비롯한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려 미래세대까지 한국과의 인연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했다.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유엔참전용사 및 유엔참전용사 후손 방한 행사, 유엔참전국 현지 위로·감사 행사 등을 계기로 전통문화 알리기에 앞장선다. 또한 향후 참전국과의 인연을 미래세대로 계승하기 위한 전통문화 정책과 국제보훈 정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한편, 양 부처는 유엔참전용사에게 감사를 전하는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국격 제고에 기여한 김인자, 김혜순 한복 디자이너에게 공동으로 감사패를 수여한다. 두 디자이너는 각각 '유엔군 참전의 날'과 '한-콜롬비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한한 유엔참전용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한복을 선물했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우리나라를 지키고 우리

전통문화를 수호해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세계 속에 한류를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계승하고, 우리 전통문화를 바르게, 널리 알리기 위해 보훈처와 다각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훈처 황기철 처장은 “유엔참전국은 71년 전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와도 같은 나라”라며, “그들이 지킨 한국이라는 나라가 문화적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알리고, 한국의 아름다움을 미래세대까지 전파해 그 인연이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p>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p>	<p>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 사무관 홍희경(☎ 044-203-2548), 주무관 김은아(☎ 044-203-2558)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p>
--	---